



마무리로 돌아온 한기주

이 손에 'KIA 4월 성적'이 달렸다

“부상없이 막강 마무리로 거듭나겠다.”
 ‘위기의 4월’ KIA 한기주가 5할 승률의 키를 쥐고 있다.

새로운 사령탑으로 재진출을 끝낸 KIA는 개막과 함께 부상으로 위기를 맞았다. 양현종·손영민·김진우가 스프링캠프 도중 부상으로 이탈했고, 심동섭·한기주도 캠프 중간 부상으로 신음했다. 라미레즈는 데뷔전도 치르지 못하고 재활군이 됐다.

고민 많던 선동열 감독에게 심동섭과 한기주의 부활은 가뭄의 단비가 됐다. 특히 경험 많은 한기주의 가세는 천군만마다. 타선의 핵심 이범호의 부상 등으로 KIA 타선이 침체된 만큼 승리를 지키기 위한 마무리 역할은 더 커졌다.

빠른 속도로 부상에서 벗어나면서 개막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한기주는 시즌 첫 출격이었던 11일, 김원섭의 끝내기 볼넷에 힘입어 행운의 승리까지 챙겼다.

강속구·투심 장착 ‘마운드 희망’으로

SUN “이달 5할 승률 지키기 버팀목”

팀의 첫 승의 주인공이 됐지만 득점한 투구는 아니었다. 볼카운트 2-0의 유리한 상황에서 첫 상대 배영섭에게 볼 4개를 연달아 던지며 볼넷을 내줬다. 안타를 얻어맞지는 않았지만 이승엽에게도 볼넷을 허용하는 등 제구가 완벽하지는 못했다.

불안한 출발이었지만 여전히 한기주는 선동열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마무리 자원이다.

선 감독은 개막 전 한기주의 상대가 100%가 아니라는 전제로 심동섭·유동훈·한기주를 상황에 따라 마무리로 기용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기주가 그 중심이라며 마무리 한기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12일에도 “어제 상황에서 가장 믿을 선수는 한기주였다. 어제 경기를 통해서 한기주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기주는 “첫 등판에서 승리투수가 됐는데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다”고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부상 없이 마무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잘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자신의 주무기인 강속구와 함께 투심이 한기주의 필살기가 될 전망이다. 변화구를 통한 투구패턴에 변화를 주겠다는 생각이다. 투구폼에도 변화를 줬다. 왼발을 들어올리는 키킹 동작에서 투구 폼포를 낮추고 축이 되는 오른발을 곳곳이 세워 하체를 활용, 공에 힘을 싣고 있다.

한기주는 “그동안 좌구 위주의 피칭을 해왔다. 올 시즌에는 맞춰잡는 피칭도 준비를 하고 있다. 좌구와 변화구 비율이 8대2이었다면 좌구 비율을 7, 6 정도로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좌구가 내 투구의 핵심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좌구 힘이 좋아야 변화구의 위력까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부상을 딛고 팀의 마무리로 다시 선 한기주가 선 감독이 구상하고 있는 4월 5할 승률을 지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좋은생각”



선동열, 윤석민과 특별 면담 “실책으로 저도 야수 원망말라”

KIA 선동열 감독이 윤석민과 특별 면담을 가졌다.

선동열 감독은 12일 삼성과의 홈경기 전에 윤석민을 따로 호출했다. 외야에서 몸을 풀고 있던 윤석민은 감독실로 달려가 10여 분간 선 감독과 자리를 했다. 면담 주제는 ‘좋은 생각’.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 감독은 “석민이에게 내 선수시절을 얘기를 해줬다”고 밝혔다.

선 감독은 “예전에 연습중이었는데 0-1로 패전 투수가 된 적이 있다. 내야수 실책으로 경기를 졌는데 그때 얘기를 하면서 야수들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줬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얘기했다”며 “나도 그때 속상하기도 했지만 내가 왜 실책을 못 잡고 땅볼을 쳐서 예러를 내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11일 윤석민은 8이닝 11탈삼진의 괴력의 투구를 하고도 0-0의 상황에서 마

운드를 내려오면서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팀이 1-0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완벽투를 선보였던 윤석민에게는 속이 상할 수도 있는 경기였다. 선 감독이 윤석민을 따로 감독실로 불러 다독인 이유다.

선 감독은 “어제 경기에서 왜 점수를 못내줬나 하면서 야수들이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큰 투수로 승장을 하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선 감독의 얘기대로 윤석민은 11일 경기 끝난 뒤 의젓한 에이스의 모습이었다.

윤석민은 “팀이 승리를 해서 괜찮다. 원래 첫 등판에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다”며 웃은 뒤 “앞으로 세 번의 등판에서 승리를 거두면 편안하게 올 시즌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황금사자기 진출권 마지막 대결

고교야구 주말리그 내일부터

황금사자기 진출을 위한 마지막 대결이 벌어진다.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라권 경기가 14·15일 광주 OB구장에서 열린다. 내달 5일 개막하는 황금사자기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진출권을 놓고 벌어지는 마지막 라운드다.

7개팀 중 4개팀에게 왕중왕전 진출권이 주어지는 가운데 광주일고·효천고·화순고가 각각 3승1패를 기록하고 있다. 진흥고는 2승2패, 군산상고와 동성고는 각각 2승3패

에 머물고 있다. 전주고는 4연패로 왕중왕전 진출이 무산됐다.

14일 오전 10시 진흥고와 효천고의 첫 경기에 이어 12시30분 전주고와 군산상고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오후 3시에는 4승 고지 선장을 놓고 화순고와 광주일고의 대결이 전개된다.

15일에는 오전 10시 광주일고와 진흥고의 경기에 이어 효천고와 화순고의 대결이 열린다. 동성고와 전주고는 오후 3시 왕중왕전에 앞서 치러지는 전라권 마지막 경기를 장식하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

선동열 “앤서니를 보면 스트레스 풀려” 최희섭 “1kg 넘는 낯은 배트는 내 분신”

■ KIA 덕아웃 말말말

▲재만 보면 스트레스가 풀려 = 선동열 감독, 외국인 투수 앤서니가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는 인사를 하고 지나가자.

▲내 인내가 어느 정도 되나 테스트해보려고 = 외야수 신종길을 2번 타자로 계속 기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선동열 감독, 타순에 변화를 주더라도 신종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키워내겠다며.

▲나와 함께 모든 곳을 함께 다닌 애예요 = 낯은 스윙배트에 대해 질문을 받은 내야수 최희섭, 메이저리거 시절부터 사용해서 WBC등에도 가지고 다녔다면서, 낯이 들어있는 배

트로 1kg가 넘는단.

▲최희섭 버락치기 하나 = 잡작 소동으로 뒤늦게 1군에 합류한 최희섭이 일찍 경기장에 나와 투타를 하는 것을 본 이순철 수석코치, 많이 치는 것은 좋은데 허리 아프지 말라는 대답을 하며.

▲짧은 애들이 더 빨라 보여요 = KIA에서 ‘뽕다리’로 꼽히는 외야수 김원섭, 다리가 길다고 해서 도루를 더 잘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목표는 다승왕이에요 = 11일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된 마무리 한기주, 운이 좋게 승리투수가 됐다고 민망해 하면서.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희섭의 낯은 배트

배상문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 노린다

26일 경기도 이천시 열려

오는 26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이천 블랙스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국내 유일의 유러피언 투어 대회 ‘발렌타인 챔피언십 2012’에 출전할 국내 선수의 운이 드러났다.

12일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데뷔해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배상문(26·캘러웨이)이 오랜만에 한국 무대로 돌아와 발렌타인 챔피언십 우승을 노린다.

2010년 한국인 최초로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을 차지한 김경태(26·신한금융그룹)도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두 선수 외에 작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박상현과 5위인 홍순상 등 국내 정상급 골퍼들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 4일부터 3라운드로 펼쳐진 ‘로드 투더 발렌타인 2012’에서는 ‘루키’ 최고우승이 우승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출전 티켓을 확보했다.

이 대회에는 아시아 최초의 PGA 투어 메이저 챔피언인 양용은(40·KB금융그룹)과 2011 브리티시 오픈 챔피언인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작년도 발렌타인 챔피언십 준우승자인 미겔 앙헬 히메네스(스페인) 등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골퍼들이 출전해 첫 대결을 벌인다.

/연합뉴스

정동진&낙산사&양떼목장 기차여행

무궁화호(무박 2일)
5월4일(금) 저녁 8시30분 광주역출발
 1인 여행비 성 인 **85,000원**
 어린이 **75,000원**

기차표/항공권/승선권/국제선할인 항공권 판매
 ※기차여행은 각역에서토접수가능합니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선여행	해외여행
1박2일 홍도/흑산도 ₩169,000원~	2일 대마도 크루즈 ₩239,000원~
2박3일 울릉도/독도 5월 3일,17일 ₩365,000원~ 5월 11일,25일 ₩385,000원~	5일 후쿠오카 크루즈 ₩580,000원~
1박2일 한라산등반·올레길 블루나래호 ₩120,000원~	5일 태항산/태산 KE ₩990,000원~
1박2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40,000원~	6일 태항산 위동혜리(매주목) ₩650,000원~
2박3일 제주도 블루나래호 ₩160,000원~	4일 청 도 위동혜리(매주토) ₩330,000원~
1박2일 보길도/청산도 ₩160,000원~	5일 청도/장보고유적지 위동혜리(매주목) ₩450,000원~
	5일 청도/태산/곡부 위동혜리(매주화) ₩460,000원~
	5일 장가계 MU ₩1,200,000원~
	4일 장가계 MU ₩1,100,000원~
	4일 황산 MU ₩670,000원~